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4호 [무게 제 25177호] 주재 105 (2016)년 2월 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려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 하 장 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재 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연방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의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몽골대통령,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통령, 수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파키스탄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도공화국 대통령,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조르바르카공화국 대통령, 싹 마리오공화국 정정판블, 브라자코라 대통령,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 우르콩사명판,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모잠비크공화국 대통령, 산토메 프린시공화국의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튀니지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예집드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국제 김일성상사회의, 국제 김일성상사회의 서기장,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의 공동리사장, 주재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로씨야연방 연례연경장관, 하버마스크리성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결성식이 1월 28일 도이쾰른드연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에서 제형되었다.

결성식은 도이쾰른드연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현정, 최현정 리하리프가 참석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사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다

재, 기관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최현정(붉은 조국) 국제비서리사, 파나 발레르 로페레가, 서기장으로 예우조선친선문화협회의 서기장 유리 카스트로 로페레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사상과 분별의 업적을 칭송하는 중앙집회, 모토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토록 만발할 태양의 꽃

지난 기간 광명성절을 맞으며 열린 김정일화축전에 33만여명의 불멸의 꽃 전시, 750여만명 관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0여차의 전시회 진행

주재의 영원한 태양이며 불멸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과 그리움, 세계 진보적인류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붉게 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영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디다.》** 위대한 선군대양의 존함을 모시고 자주시대의 꽃, 전인류의 꽃으로 아름답게 만발한 김정일화는 만민이 오심으로 반들어올린 세계적일명화이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인칭송의 불타는 마음에 발동하여 주재 88(1997)년에 첫 축전이 열린 때로부터 해마다 진행되어오고 있는 김정일화축전은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해마다 총 20만여명 관람객을 새겨게 된다. 지난 기간 꽃길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열린 김정일화축전에 33만여명의 불멸의 꽃이 전시되었으며 축전참가인원은 1400여명, 축전준비인원은 300여명, 축전준비를 맡은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수는 750여만명에 달한다.

최세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호모심과 지성에 의하여 지난 기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0여차에 달하는 불멸의 꽃 전시회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조국대방 70과 당장전 70과이 되는 꽃길은 지난해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정일화전시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은 위인칭송의 꽃인 김정일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의 역사에 새겨어올린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여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하였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배우산대국의 영원한 영웅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찬세대에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불타는 충정과 호모심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더 아름답게 활짝 피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서 속전장을 풀없이 찾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 영도자를 만드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영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을 보았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았던 쿠바공화국 후방전선대사는 참으로 훌륭한

명예에 달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기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심을 안고 축전장에 전시하게 될 김정일화세대에 언제나 뜨거운 충정을 바쳐왔으며 정성껏 귀중한 김정일화들은 해마다 불멸의 꽃축전장을 아름답게 장식하여왔다.

불멸의 꽃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이룬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최세의 선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양을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불꽃 피어난 꽃송이들을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한평생 모신 교생을 다 겪으면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장군님을 배우산대국의 영원한 영웅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활한 영도따라 이어이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고야말 불타는 신념의 명세를 다지곤 하였다. 축전장을 돌아본 외국의 빛들은 김정일화축전은 조선에서만 열릴수 있는 위인칭송의 대축전이라고 하면서 축전장을 풀없이 찾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자기 영도자를 만드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영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을 보았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았던 쿠바공화국 후방전선대사는 참으로 훌륭한

본사기자 주 령 본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같이 열쳐나사야 합니다.》** 경애하는 위수님의 신년사에서

석탄공업성에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1월에 뚜렷한 석탄생산성공을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월 31일 현재 석탄공업성에서는 1월 석탄생산계획을 103% 넘쳐 수행하는 자못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당 제 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달성할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총동력을 힘있게 벌려온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철도공업성에서

특히 화력발전소석탄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발전소들에 최소한 한달전력생산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선진지구형년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1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선진지구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독장지구탄광연합

기업소가 앞장섰다.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경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천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불리한 조건을 타파하면서 증산률적진을 힘있게 벌려 1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치게 수행하였다.

철도성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증수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1월 화물수송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철도성과 각지 철도국의 일군들은 계획수행에 각 당조직의 지도로써 헌신적으로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화산식정지사업들을 힘있게 벌리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

다. 특히 경제강국건설에서 전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가는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부문의 각지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상원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으로 당 제 7차대회를 준비하는 석탄생산과로 맞이 할 마음으로 뜻깊은 2월에도 생산률적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기 관성에서

평안북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에 맞게 방합할, 구간별로 따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불분수송에 이룩되도록 하였다. 국이적 격화차대 수송전사들은 화차수리의 질적보

정안북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에 맞게 방합할, 구간별로 따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불분수송에 이룩되도록 하였다. 국이적 격화차대 수송전사들은 화차수리의 질적보

정안북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에 맞게 방합할, 구간별로 따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불분수송에 이룩되도록 하였다. 국이적 격화차대 수송전사들은 화차수리의 질적보

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화물수송 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개천, 청진, 라선철도국에서도 기관차와 화차배차조직, 정비자들과의 사업에 민중들이

림업성에서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산림관리에서 증산투쟁의 불길들 거세게 지펴올려 첫달 통나무생산성공을 이룩하여왔다.

당조직의 지도로써 림업성의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통나무를 충분히 보내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에서는 대량의 장의장반성을 높여주는 화산식정지사업과 부속물보장에 주되는 힘을 넣어 비산, 정목생산사업소들에서 미산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자강도림업관리국이며 림산, 정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 첫달 통나무생산계획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었다.

관리국감무부에서는 림산, 정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결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과 함께 내부배비를 탐구중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이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수력조율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현대적인 수자식조율기들도

본받아 제일 높은 전력생산성적을 기록하였다.

장차개발전소와 장전개발전소, 대천발전소와 금야강간년발전소, 대동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 강계정년발전소와 로동자수송 수력조율소를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발전설비들의 정상기동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위원발전소와 서부수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고생산선도수준을 돌파하여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 상원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단천지구광업총국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에서 생산,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정신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려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국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증산투쟁의 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경제조직과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이며 림산, 정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 첫달 통나무생산계획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었다.

관리국감무부에서는 림산, 정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결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과 함께 내부배비를 탐구중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이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수력조율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현대적인 수자식조율기들도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1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광 역 찍음

중랑레루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의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금속공업부문의 주재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새해 첫 전투부터 철강재생산에서 집안주의적경쟁정신을 불붙이 세차게 마르도록 화산식정지사업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주재조선의 첫 수송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양산된 생산자 대공의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구호들과 승부들을 전투현장마다에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경제선동의 북소리들을 높이 울리며 용해공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배주었다.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중랑레루생산의 선형공정인 선형

과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하는 데 선자적인 힘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과거하며 풀어나가고있다. 리더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다. 중랑레루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강철직장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원료수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철로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기술공정들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초고전력기로의 용해시간을 단축하여 한차지의 처리율이도 더 높기 위한 불꽃

투쟁의 전투를 벌리고있다.

용광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선형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조진이 불리하고 애로가 적지 않지만 이력 로동계급은 베풀어준 혁명정신, 베풀어준 결의정신으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선형생산성공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금속공업의 주재화, 현대화를 새로운 눈으로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끈기있게 내달리고있다.

4. 15기술혁신동력대, 주재화, 청진1가공직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고강성형기기의 혁신을 완성하는 한편 용해시간을 단축하여 한차지의 처리율이도 더 높기 위한 불꽃 투쟁의 전투를 벌리고있다.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합경북도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철강재생산을 쉼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합경북도에서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이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수력조율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현대적인 수자식조율기들도

는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위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전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에게 더 많은 과업을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일군들은 자신들부터 과한 수위에 앞장서면서 대중속에 들어가 과할수있도록 한사발같이 열쳐나서도록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경계시과 과할수있도록 과한 수위에 앞장서면서 대중속에 들어가 과할수있도록 한사발같이 열쳐나서도록 정치조직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본사기자 리 철 역

백두의 칼바람은 영웅청년신화를 낳는 기적의 폭풍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불타는 심장으로 쌓아올리는 청춘의 위훈담

우리는 지금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 발전기실타입전투가 한창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함경북도려단 5대대전투장에 있다. 마얼에서는 영하 32℃의 강추위가 대지를 광장 얼리고 사납게 불어치는 눈보라가 안개와 같이 하늘의 못면들을 가려우고있지만 풍막과 덧짐에 견고하게 싸인 여기 작업장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열기로 불타고나만 붙어변지고있다. 10여m나 되는 풍중에 설치된 발전기실로 뛰어다니며 타입공사를 나르는 돌격대원들, 휘날리는 연방 깃발이 새겨진 타입공사를 꾸러다지기 위해 쫓겨다닐 땀을 흘리는 타입공들, 작업의 질보장을 위해 눈코볼레없이 뛰며

다리는 지휘관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방만적인 노래와 호탕한 웃음소리, 쉬임없이 돌아가는 혼합기의 고도로운 돌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경감한 돌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치는 역전 기둥들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연

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들여 키우신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역사의 증경자, 수평적으로 열렬하고 조국애로 피끓는 이 나라 청년들이 불타는 심장으로 쌓아올리는 흥정의 언저, 청춘의 위훈담이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면 누구나 인제공로리드추퍼리구간의 덧짐을 불타 4일만에 건설하여 돌격대원들이 본격적인 타입전투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의 위훈을 잊지 못해한다. 그들이 맡은 덧짐공사는 길이 백수십m, 너비 수십m의 구

간에 반대목들을 거의 10m높이로 촘촘히 세우고 그우에 비닐막을 씌우는 아홉천 작업량이였다.
하지만 돌격대원들은 주재하지 않았다. 지휘관들만이 아닌 나이던 내대원들까지 허리를 치는 물속에 뛰어들어 돌들며 다니는 얼음을 헤치고 물을 거뭇으며 반대목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무서운 강추위였지만 백두정충들의 불같은 심장만은 얼얼수가 없었다. 백두의 경감한 돌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

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에게 있어서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는것이다.
함경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의 이런 영웅적투쟁으로 하여 덧짐공사는 불과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1월 13일에는 포크리트추퍼의 첫 타입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강동열은 이야기는 발전소건설장의 어느 돌격대원에게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나아가 쫓겨치는 언저는 새겨안고있다. 혼합물이 얼어든다고, 완공의 그날이 늦어진다고 맞지도 성차지 않아 마대에 혼합물을 넣고 달리며 뛰쳐던 전투원들의 결사투쟁의 구호도, 심장의 뜨거운 열로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가리리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부르며 포크리트타입을 하던 돌격대원들의 장한 모습도, 매일같이 천리를 달려 소문없이 긴장한 화물수송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운전사들의 충정의 운행경로...
사투수의 상투에서 하루로 충성이 언저와 발전소를 세우며 백두산기슭에 행복을 마련해가는 영웅청년건설자들에게 있어서 맑은 겉로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단꿈을 꾸며 새날을 맞이할 때 청년돌격대원들은 밤에 걸고 혼합물을 젖은 작업복을 입고 북방의 찬바람을 불라는 심장의 열기로 이겨내면서 건설장에서 새날을 맞이한다. 제복보다 혼합물이 얼거와 더 안타까와하며 불의 바다로 언저를 달던 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의 가슴아디에는 이 땅에 평

의 밝은 빛을 더해주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고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양친처럼빛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사랑과 헌신의 그 불꽃을 생각하며 백두정충들은 밤이 깊어도 잠들수가 없었고 명철날, 휴식일이 되어도 건설장을 뜰수가 없었다.
하기에 한 돌격대원은 자기의 작은 수형이 이렇게 썼다.
《...세일 참가 함동것은 사정없이 불려오는 불음이다. 장판지를 끄고고 혀를 힘껏 깨물어 보았지만 소용없다. 타입공 어디에선가 《우리 원수님》의 노래가 들려온다. 그제, 이 시각에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한방을 지새우실거야. 나는 원수님과 함께 이 밤을 지새운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불 못할 뜨거운 피가 온몸을 덮히고 격정이 그 무서운 불음을 쫓아버린다. 백두의 칼바람이 나를 정신차리게 해준다. ...》
정말한 돌격대원의 그 수형에서 우리는 백두정충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조국의 만년대부를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마련해가고있는가.
그들은 1월의 평탄 강추위에서 투나루를 끌어내리고 마태전도 벌리면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고 어려운 조건에서 함마를 휘두르고 작업을 하여 시련을 이겨낼줄 아는 귀중한 세입을 하고있다. 최불이 손이 딱딱 얼어붙는 대소한의 추위에서도 상에붙인 눈썹을 관두세우고 맑은 작업복을 철원 넘쳐 수행하면서 당에 다진 병세를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

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겨울의 전후는 어느때보다 몇 배로 힘이 들고 어렵다. 무슨 힘이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을 북방의 강추위도 웃음으로 날려보내는 당중앙의 역전 전위투사로 키웠인가.
자강도려단의 한 녀성대장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다. 추위가 계속되던 1월 어느날 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1월에 보내주신 선물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두툼한 솜옷과 따뜻한 겨울내의, 복신한 담요와 산뜻한 육두리...
누구인가 부모들에게도 자랑삼아 보이고싶고 귀중한 거보로 한방으로 간직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덮어질세라 여태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베넌에 없는 울혜의 강추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퍼하여 그토록 불을 들어 겨울옷들을 장만하여 보내주시셨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어린 겨울옷을 입고 밖에 나시니 가슴은 결코 후회되지 않았다. 북방의 무서운 강풍을 막아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어 3호발전소건설을 청춘의 위훈담으로 일떠세우게 하고있다. 백두의 청년전위들 누구나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평의 기념사진을 찍던 1호발전소연세의 그 지리에 다시금 자신들을 세워 보며 백두의 칼바람으로 신념과 배짱을 더욱 언저게 버린다.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연

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쫓겨치고 불굴의 자강력으로 흔흔히 다져지고있다.
당의 불꽃에서 우리 청년들은 백두의 언저와 더불어 창조된 투사들로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 청년처럼 변혁거리는 도시의 변화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한 불에 쏘인 말뚝과 땅의 뜻을 불타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정충대학》이라는 파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말뚝의 정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그런 불타는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가.
백두정충들이 소중한 사랑과 넉을 담아 일떠세우는 여기 영웅청년발전소의 언저에는 그대로 그들이 한방으로 간직할 자서전이라고 하다.
후날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시대앞에 무엇을 남겼는가고 물을 때 그들은 뭇뚱이 대답할것이다.
나는 백두산기슭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위훈담을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한사원이었다고도.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명적성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돌격대원들은 오늘도 북방의 사나운 강풍을 이겨내며 여기 3호발전소건설장에서 심장의 불꽃을 불고있다.
《백두정충대학》의 자랑스러운 최우등졸업생이 되리. 이런 불같은 열념을 이룬 백두정충들의 영웅적위훈에 떠날뻔한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연세는 나날이 커를 쫓아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격전장에서 터진 신념의 목소리
《백두청춘대학》의 최우등성적증
나는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뭉개어 모시고 영평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 날을 잊을수가 없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영애로운 한 성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전현군의 이름없는 로동자인 내가 어떻게 이만큼 크나큰 영광을 받아들일수 있었을것인가.
나는 돌격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나에게 청년동맹조직과 동지들은 백두의 넋을 사상정신적 기둥으로 심어주었고 백두의 숭고한 청춘의 삶을 빛내이도록 해주었으며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아나가는 당과 배짱의 소유자로 키워주었다. 정말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는 말 그대로 《백두정충대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불타 몇년동안에 이렇듯 불타오르듯 성장한 나도 한자리에 세워 말 전소연세를 배경으로 영평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저나 심장같이 간직하고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건설에서 청년돌격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며 청춘시절을 《백두정충대학》의 최우등성으로 빛내이겠다.
자강도려단 4대대대원 김은경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발동된 정신은 무한한 자강력을 낳는다.
대대에서는 대원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자강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공수행시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우리가 창고고안으로 맞이되었던 활착기를 살려 언저공사를 풍성계획에

맞게 추진시키게 된것도 자강력이 인아은 귀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수조만까지 보충한 핵강국의 한 성원답게 자강력의 마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백두산영웅청년 3호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완공하는데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다.
속도전현전핵폭격대지도국 운수처장 대대장 김호걸

우리는 지금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 평안북도려단 5대대 돌격대원들의 투쟁자료를 새겨진 전투기록장을 마주하고있다.
- 2015년 12월 20일
대대는 11월 하순 3호발전소 언저전투를 위한 상투가름막이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온은 영하 20℃를 오르내리고있다. 제일 난문제는 진날에 해눈은 온신과 전후다짐이 다음날 아침이면 온도가 내려가 30cm 풍풍 얼어붙는것이다. 그러나 대대의 모든 대원들은 언부위를 깨내고 그우에 다시 온석과 전후다짐을 해가며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맑은 일부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2016년 1월 4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을 받아안은 대대의 모든 전투원들은 새벽 첫 전투인 배수로굴착 및 돌재위, 운반사업에서 하루 계획을 130%로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
전투기록장을 한장한장 인저 갈수록 북방의 얼혹한 추위속에 서 기적과 헌신의 창조해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미려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이

는 평탄, 어느 대대이나 이런 강동열을 위훈의 자욱이 새겨진 전투기록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춘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날려는 악센을 단칼에 쳐내며 투쟁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전투기록장도 있는것이다. 어느 전투기록장을 펼쳐보아도 얼혹한 겨울을 이겨내며 건설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의 위훈의 자욱에 대해 말할수 있다. 1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은 더욱 내려가고 공사조건은 극도로 불리해졌다. 영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는 사람도 끝내도 모두 얼어붙게 하였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년함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당 제7차대회전투로 3호발전소 건설을 거머쥐어 끝내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려는 백두정충들의 하나와 같은 심장의 고백과 함성의 자욱이 전투기록장마다에 그대로 새겨져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기록장!
이것을 어찌 돌격대원들의 투쟁자료를 적어놓은 기록장이라고만 하라.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이 정해준 침로따라 북풍처럼 내달리며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가는 백두정충들의 위훈으로 수놓아진 청춘의 자서전이다. 이런 삶이 가장 값있고 영애로운것인가를 생동한 사실로 깨우쳐주는 함성의 거울, 투쟁의 교과서이다.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 3호 발전소건설장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러모았다.
전투기록장에 위훈이 남았다 새겨질수록 더욱 부강하고 번영해갈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강원남
(원지에서 전송)

당이 정한 침로따라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간다



장편서사시

태 양 의 하 늘

(전호에서 계속)

6

초저녁 너인들은 모여있었다...
저 선봉지구 대학동굴안에선...

우리 어찌 가만히 있어있으랴...
페일은 피해복구공사장에 지원할...

정성껏 마련한 아름다워 퍼지...
어떡하면 살수없이 군대 동무들에게...

도로면 엄격한 《호전물자차단보조소》...
어떡하면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사정도 호소도 소용이 없네...
목석같은 경우판은 영 미이동중...

엣그제는 누구네가 머리를 써서...
건설자제 곡식 실은 적체함비에...

그날에 보초근무 책임진 경우판...
온 부대를 돌면서 자기비판했지만...

그 일은 글에 담았소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사정바늘을 있나...

이 일을 이력한다...
꽃피네 우리 차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우판을 눈앞에서 저 꿀꿀이들을...
일제히 허치시켜 두두 내몰지...

벽토도 지나 후분이 다카오니...
노루꼬리만큼의 짧아지면 해...

(에그머나, 벌써 어두워지는군)...
허둥지둥 산을 내려와...

(페일은 헤쳐가기전부터 마야)...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발걸음 헛터에도 아픈줄 모르고...
허위허위 산을 내려가 하는 생각...

의손자 친손자 군대에 보낸 할머니...
큰손속에 친만다행 구원된 할머니...

원수님의 명을 받은 인민군대...
원수님의 명을 받은 인민군대...

고기며 당과류며...
원수님 보내주신 식료품 가지가지...

다른 병영 가져가면 또 피로이오고...
온밤 세번이나 드나들었던...

오늘이아 월경...
산에서 편 다래인걸...

뜻다 제운 다래바구니...
《에비방안》으로 가득 채우며...

(됐구나!)...
친박주변엔 인기척도 없어...

이즈음 그이는 더더욱 바쁘시리라...
당장엔 일흔들이 하루하루 다가...

그이께선 더듬어보고계시리라...
하루하루 손뼉이 경사의 날 마중...

가진 거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나같은 늙은이들을 노렸다고...
하지만 보초병은 여전히 질박...

기막힌듯 언성이 높아지면 할머니...
드디어 다래바구니 안고 주저앉아...

말머니와 병사의 씨름...
인정의 씨름! 감동의 씨름!

우주에서...
어느 별성이...

그이는 바쁘시다...
시대를 놀래우는 온갖 사면들이...

이 나라 천사만사가...
그이 가르치심을 기다리고...

이즈음 그이는 더더욱 바쁘시리라...
당장엔 일흔들이 하루하루 다가...

그이께선 더듬어보고계시리라...
하루하루 손뼉이 경사의 날 마중...

가진 거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 진정 그이는 대양...
친박력만이 장군님을 잃어...

아침에 비행기로 갑시다...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이, 그이는 최고사령관!...
한번 손들어 가리키시면...

복우 쏟아지던...
8월의 그날, 그 비를기속을...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여기다!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추켜올른 곳...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어머니로 되게 한 근본...
준필히도 이르시다 그이는...

그름에 와르르 밀고 들어간다고...
그도 수몰리는 날이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어떤 날엔 산 재가자 아름다워나...
건설장 여기저기 뛰어들어...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중국 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 일행 도착
즐거은 농민휴양 환상 안락군농민휴양소에서



